

민주국사

한국사

I. 출제 빈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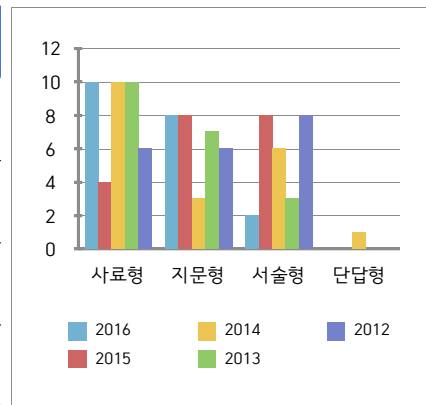
1) 단원별 문항 분석

● 2015년					● 2016년			
출제영역	수	출제 주제	유형	난도	수	출제 주제	유형	난도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	-	1	• 역사의 의미	지문	하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구석기~철기)	1	• 신석기 사회 모습	지문	상	1	• 고조선	도식	중
고대 사회의 발전 (삼국~남북국)	3	• 순장	지문	중	4	• 백제의 역사적 사건	도식	하
		• 통일 신라 지방 행정 조직	서술	하		• 소수림왕	사료	하
		• 원효와 의상	지문	중		• 통일 신라의 귀족	사료	하
중세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3	• 최승로의 개혁안과 성종	사료	중		• 풍수지리설	지문	중
		• 고려 사회의 모습	서술	하	3	• 충선왕	지문	중
		• 고려 농민을 위한 정책	서술	하		• 전시과 제도의 변천	도식	중
근세 사회의 발달 (조선 전기)	3	• 조선 전기 중앙 정치	서술	하	1	• 이항	사료	중
		• 조선 전기 사림	서술	중				
		• 과전법과 그 변화	서술	하				
근대 사회의 태동 (조선 후기)	3	• 균역법과 영조	사료	중	3	• 임진왜란	지문	상
		• 조선 중인	사료	중		•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사료	중
		• 조선 후기 경제 동향	사료	하		• 대동법	사료	하
근대 사회의 전개 (구한말)	3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지문	중	3	• 각국과의 통상 조약	서술	중
		• 대한국 국제	서술	하		• 갑신정변	사료	상
		•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지문	중		• 구한말의 역사적 사건	사료	상
민족의 독립 운동 (일제시대)	1	•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지문	하	3	• 토지 조사 사업	사료	상
						• 의열단 활동	사료	상
						•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 운동	서술	중
현대 사회의 발전 (광복 전후~현대)	2	• 광복 전후의 사건	지문	중	1	• 모스크바 3상 회의	지문	중
		• 한국 전쟁과 휴전협정	지문	중				
통 합	1	• 우리나라 농서	서술	중	0	-	-	-

2) 유형별 문항 분석

2016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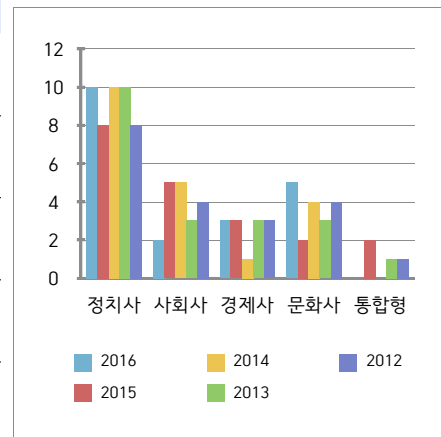
출제유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사료형	10	4	10	10	6
지문형	8	8	3	7	6
서술형	2	8	6	3	8
단답형	0	0	1	0	0



3) 제도사별 문항 분석

2016년 ~ 2012년

출제유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정치사	10	8	10	10	8
사회사	2	5	5	3	4
경제사	3	3	1	3	3
문화사	5	2	4	3	4
통합형	0	2	0	1	1



II. 출제 경향 분석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남아 있는 시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대한 경향 분석을 하면 전체적으로 1년 정도의 수험생 입장에서 평가는 85~90점 정도 난도(난이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문항은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 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일부 사료나 예문에서 생소한 내용들이 수험생에게 갈등이 있었으리라 보기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렵게 느껴졌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일부 임진왜란의 순서, 갑신정변, 구한말의 사건, 토지 조사 사업, 의열단 문제가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너무 쉽게 출제되어서 난이도 조정에는 격차가 있어 아쉬운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결국 체계화된 수험서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험이었다고 본다.

한 국 사

KG패스원
담당 박 민 주 교수

문 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 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① (가) -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 ② (가) -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 ③ (나) -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 ④ (나) -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 출제 영역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 정답 : ③

▶ 2016년 민주국사 504~506p

■ 해설 : ③ (나) 일연의 삼국유사는 대몽 항쟁기를 거쳐 원 간섭기로 이어지는 대내외적으로 대단한 격동의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적인 저항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토대로 편찬하였다.

① (가) 삼국사기는 신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국 시대 역사를 정사 중심으로 서술하여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소홀히 하였다.

② (가) 삼국사기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한 이후 신라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④ (나) 삼국유사는 자주적 사관에 의해 편찬하였으며, 삼국사기가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비교

구 분	삼국사기(官撰)	삼국유사(私撰)
저 자	김부식	일연
저술 시기	귀족 사회 전성기(인종, 1145년)	원 간섭기(충렬왕, 1285년)
방 법	기전체	기사본말체(야사체)
내 용	삼국부터 다룬 왕조 중심의 정사	단군의 건국 설화부터 다룬 설화 중심의 야사
사 관	합리적 유교 사관(충절, 효행, 정절)	민족적 자주적 사관(불교, 단군, 무속)
계승 의식	신라	고조선

문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 ④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 출제 영역 : 충선왕

● 정답 : ①

▶ 2016년 민주국사 414~415p

- 해설 : ① 그는 충선왕으로 연경(북경)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을 설립하여 내외 서적을 모으고, 고려에서 이제현 등과 원나라의 조맹부 등의 학자를 초빙하여 학문을 연구하였다.
-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였던 시기는 최초의 부마였던 충렬왕 때로 군사와 행정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하였다.
- ③ 철령위 설치 문제로 명의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던 시기는 우왕 때로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였다.
- ④ 기철 등 친원파를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던 시기는 공민왕 때이다.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 ②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 ③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 ④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검토해 본다.

◆ 출제 영역 : 역사의 의미

● 정답 : ①

▶ 2016년 민주국사 32p

■ 해설 : ① 사료(史料)는 역사의 흐름 전체에서 보면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기술자의 편견 등으로 일치하지 않기에 사료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먼저 외적 비판으로 사료의 작성 시기와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진본을 토대로 사료의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 개개의 점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문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 출제 영역 : 모스크바 3상 회의

● 정답 : ①

▶ 2016년 민주국사 1524p

■ 해설 : ① 제시된 사료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1945년 12월 27일)으로 이 회의에서는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 동안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 통치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② 서울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던 시기는 광복(1945년 8월 15일)과 더불어 최초의 정치 단체로 조직되었다.

③ 유엔 감시 하의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는 1948년 5월 10일이다.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 시작은 1945년 8월에서 9월에 시작되었다.

문 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 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중략)…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윤치호일기』 -

- ①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 ④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 출제 영역 : 갑신정변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1114~1117p

■ 해설 : ④ 밑줄 친 ‘사건’은 개화당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일본 공사관이 소실되었고 정변이 실패한 뒤 일본 측은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물었고, 두 나라는 일본 공사관 신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① 윤치호 등 손탁 호텔을 중심으로 한 정동구락부 세력은 독립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② 개화당은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景祐宮)으로 이어하고 정강을 발표하였으며,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였을 때는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 과정에서 일어났다(1894년 6월 21일). ③ 개화당이 갑신정변 이전 수신사 박영효 등 여러 차례 차관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일본은 김옥균이 조선의 정계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들어 차관 교섭을 기피하였고 보수 세력이 차관 교섭을 방해하여 결국 김옥균의 차관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일 통상장정(1876) -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②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 - 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③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 - 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 ④ 한.청 통상조약(1899) - 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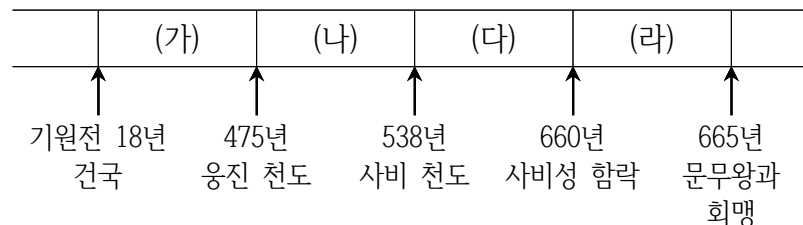
◆ 출제 영역 : 각국과의 통상 조약

● 정답 : ①

▶ 2016년 민주국사 1095p, 1109p, 1170p, 1244p

- 해설 : 해설 : ① 방곡령 규정이 합의된 개정 조·일 통상 장정(조·일 무역 규칙, 1876년)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를 규정하였고 개정된 1883년 내용에는 국내 사정에 의해 방곡령이 있을시 지방관이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고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②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년)에 의해 내지통상권이나 서울과 양화진에 상점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은 최혜국 대우와 관세가 일본에도 규정되었다. ④ 대한제국은 1899년 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황제 명의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문 7. (가) ~ (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 관등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 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 ② (나) - 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 ③ (다) -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 ④ (라) -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 출제 영역 : 백제의 역사적 사건

● 정답 : ②

▶ 2016년 민주국사 140p, 160~163p

- 해설 : ② 근초고왕(4세기 후엽)은 마한 세력을 정복하고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까지 진출하였기에 문주왕(475년 웅진 천도) 이전이다.
- ① 고이왕(3세기 중엽)은 율령 반포를 통해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③ 성왕(6세기 중엽)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를 일시 회복했으나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이 지역을 빼앗기고 관산성 싸움에서 패하였다. ④ 백제 멸망(660년) 이후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풍을 중심으로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문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 신라 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 『신당서』 -

- ①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 ②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 ④ 식읍·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 출제 영역 : 통일 신라의 귀족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239p, 243p, 311p

■ 해설 : 제시된 사료는 통일 신라 진골귀족들의 풍부한 경제 기반을 서술하고 있다. ④ 통일 신라의 귀족들은 식읍과 녹읍을 통하여 소유한 대토지나 목장 등에서 나온 수입으로 금입택이나 사절유택 등의 비용을 충당하였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도 수입원의 하나였다.

① 진골 귀족의 이별찬까지 관등 승진이 가능하였으며, 아찬은 6두품의 관등 승진의 상한이다. ② 신라 하대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돌무지덧널무덤은 통일 이전 신라에서 유행한 무덤 양식이다.

문 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ㄹ → ㄴ → ㄷ → ㄱ
- ④ ㄹ → ㄷ → ㄴ → ㄱ

◆ 출제 영역 : 임진왜란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620~625p

■ 해설 : ㉠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학익진법을 이용하여 승리(1592년 7월) ㉡ 진주 목사 김시민이 광재우와 더불어 승리로 이끈 진주 대첩(1592년 10월) ㉢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작전(1593년 1월) ㉣ 권율의 행주 대첩(1593년 2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주요 일지

1592년 4월	부산진(정발)과 동래성(송상헌) 싸움 일본군 침략, 광재우·조현 등 의병 일으킴
5월	이순신, 사천 해전에서 거북선 처음 이용
7월	한산도 대첩(이순신), 승병 일어남(휴정)
8월	금산 전투(조현, 영규 전사)
10월	진주 대첩(김시민)
1593년 1월	평양 탈환(수복)
2월	행주 대첩(권율)
6월	진주성 함락(김천일, 논개 전사)
1594년 2월	훈련도감 설치
11월	속오군 편성
1596년 7월	이몽학, 홍산에서 난을 일으킴
8월	의병장 김덕령 옥사(이몽학의 난 연루)
1597년 1월	정유재란(일본군 재침)
7월	원군 전사, 이순신, 삼도 수군통제사에 임명됨
9월	명군,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 대파, 명량 대첩
1598년 8월	도요토미 사망 후 일본군 철수 시작
11월	이순신, 노랑 해전에서 전사, 일본군 철수

문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 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큼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①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③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④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 출제 영역 : 대동법

● 정답 : ②

▶ 2016년 민주국사 943~945p

■ 해설 : 제시된 사료의 대납(방납)을 통해 ‘이 법’이 그 개선책인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②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후 인조 때에 조익의 건의에 따라 강원도까지 확대되었다.

① 대동법은 기존 호를 기준으로 징수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이나 포목, 돈으로 부과하게 되었다. ③ 대동법의 시행으로 상공은 없어졌으나 별공이나 진상의 현물 징수는 존속하였다. ④ 대동법의 시행되면서 운영 관청으로 선혜청이 설치되었다.

문 1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 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 『삼국사기』 -

- ①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 ② 진휼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 ④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 출제 영역 : 소수림왕

● 정답 : ③

▶ 2016년 민주국사 156~157p

■ 해설 : 사료의 밑줄 친 ‘왕’은 고구려의 소수림왕으로 백제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진과 수교하고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③ 소수림왕은 유학 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 대학인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고대국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①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집이 「유기」를 간추려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② 고국천왕 대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실시하여 국역 기반을 확보하고 귀족을 견제하였다. ④ 고구려 담징이 그림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일본에 전해준 것은 7세기경이다.

문 1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중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 ②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 ④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 출제 영역 :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1382~1387p

■ 해설 : ④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한중 연합 작전으로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① 신민부는 북만주에 자유시 참변 이후 대중교 계통의 인사들이 내려와 1925년에 조직하였다.
 ②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 1920년 6월 20일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한 전투이다. ③ 1920년대 중반 이후 1차 국공 합작을 계기로 만주에서도 3부의 통합 노력이 있어 통일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일부 혁신의회와 다수의 국민부로 통합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문 1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소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일성록』 -

- ①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 ②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재소가 설치되었다.
- ④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 출제 영역 : 조선 후기 사회 모습

● 정답 : ③

▶ 2016년 민주국사 495~496p, 984~985p

■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조선 후기 납속책 등을 통해 신분제의 동요를 보여주고 있다. ③ 경재소는 조선 세종 때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① 조선 후기 부계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동성(同姓) 마을이 증가하였다. ② 조선 후기의 향회는 사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변하하는 등 기능이 약화되었다. ④ 부농층은 국가 재정 위기 타개책에 편승하거나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는 등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문 1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 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 출제 영역 : 이항

● 정답 : ③

▶ 2016년 민주국사 1135p, 1174p, 1184p, 1190p

■ 해설 : 제시된 지문을 통해 밑줄 친 ‘이 사람’은 이항에 대한 내용이다. ③ 이항은 주희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주리론을 집대성하는 등 동방의 주자라 칭하였으며 이귀기천론을 통해 이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유성룡, 김성일 등에 영향을 주었다.

① 서리망국론은 조식이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주장하였다. ② 구도장원공은 이이로 중요 관직에 나가 집권 세력으로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면이 있었다. ④ 기에 천착한 서경덕과 관련이 있다.

문 1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 출제 영역 : 의열단 활동

● 정답 : ②

▶ 2016년 민주국사 1566~1568p

■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신채호가 1923년에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으로 김원봉이 1919년 길림에 조직한 의열단의 강령이다. ② 경성 부민관 투척 사건은 1945년 7월 비밀결사인 대한 애국 청년단의 단원 조문기, 유만수 등이 종합공연장으로 일제 찬양이 가득하자 폭탄을 투척하여 대회를 무산시켰던 사건이다.

①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등 좌우익의 여러 단체들이 민족 독립운동의 단일 정당을 목표로 1935년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③ 1924년 의열단인 김지섭의 이종교 투척 사건이다. ④ 1926년 나석주 의거는 김구와 함께 임정을 이끌던 김창숙의 요청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파 임무를 부여받고 국내 입국하여 활동하였다.

문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중략)…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

- 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②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③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④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 출제 영역 : 구한말의 역사적 사건

● 정답 : ③

▶ 2016년 민주국사 1168p, 1263~1265p

■ 해설 : ‘매일신문’은 1898년에 창간된 신문으로 구한말 외국인의 유입으로 침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③ 중추원은 대한제국 시기에는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개편되어 총독부 자문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 조선의 제도나 관습 등 식민 통치에 참고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친일학술 기관 역할을 하였다.

① 대한제국에서는 경운궁(덕수궁)을 정궁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키고 풍경궁이라는 행궁을 건설하였다. ② 한성은행, 천일은행 등 근대 개항기에 설립한 민족계 은행이나 일제 화폐 정리 상업으로 몰락하였다. ④ 1890년대에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의 합자로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899년에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는 전차가 최초로 운행되었다.

문 1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주택·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 ①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 ②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 ③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④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 출제 영역 : 풍수지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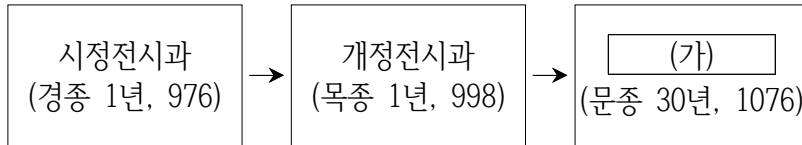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296p, 522~523p

■ 해설 : 제시된 ‘이 사상’은 풍수지리 사상이다. ④ 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초제는 도교에서 여러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로, 고려시대 때 국가적 행사로 개최되어 예종 때 도교 사원인 복원궁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①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것에서 주택이나 묘지 선정 등에 반영되었다. ② 풍수지리 사상은 신라 하대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호족 세력을 중심으로 신봉되면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③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설이 유포되면서 특히 서경명당설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문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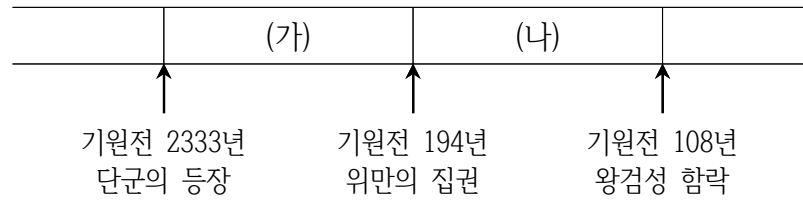
◆ 출제 영역 :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

● 정답 : ④

▶ 2016년 민주국사 471p

- 해설 : (가) 제도는 문종 때 시행한 경정전시과이다. ㉠ 경정전시과에서는 현직(職官) 관리만을 지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직(散職)인 퇴직자 등에는 전시과의 과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경정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정 전시과에 비해 등급별로 토지 지급 액수가 감소하였다. ㉢ 경정전시과에서는 현종 때 거란 격퇴에 공을 세운 무관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무반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 시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으로 광종 때 시행한 관복제도를 고려하여 관품이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문 1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가) -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 ㄴ. (가) -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 ㄷ. (나) -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 ㄹ. (나) -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출제 영역 : 고조선

● 정답 : ①

▶ 2016년 민주국사 92~96p

■ 해설 : (가)는 단군 조선, (나)는 위만 조선 시기이다. ㄱ. 고조선은 3세기경 왕위를 세습하고 관직으로 왕 밑에 관직으로 상(相), 대부(大夫), 대신(大臣), 장군(將軍), 박사(博士) 등이 있었다. ㄷ.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고 동방의 예(濊)나 남방의 진(辰)이 한(漢)과 무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였다.

ㄴ. (나)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창해군은 위만조선에 반발한 예의 군장 남려가 28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자 한 무제가 요동에 설치한 군 이름이다(기원전 126년).

문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 %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 출제 영역 : 토지 조사 사업

● 정답 : ②

▶ 2016년 민주국사 1546p, 1547p, 1556~1559p

■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912년에 제정된 토지조사령이다. ② 토지 조사령 제 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많은 약탈하였다.

①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과 별도로 삼림령을 통해 1911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임야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고 1917년에는 임야 조사령을 통해 전 산림의 50에서 임야를 강탈하였다. ③ 1918년 개정된 지세령은 필지별 토지수익에 근거한 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였다. ④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은 1906년 외국인 즉 일본인도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지방직 및 서울시 합격을 위한 한국사 총정리
제도사와 동형모의고사 (진도별 4주+실전모의고사 4주)
4월 20일(수) 개강 매주 수 09:00~13:00 (8주완성) KG패스원

공무원 한국사 학습문의와 자료실은

다음카페 : 한국사의 대명사 민주국사 카페(<http://cafe.daum.net/mjukksa>)

